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0월 19일 · 제 378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Royal FloraHolland사, 화훼 해상 콜드체인 활용 테스트 중
2. 미 동남부지역,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으로 물류지연발생
3. 호치민시, ITC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4. 1-9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처리물동량 8.5% 증가한 1억 38백만 톤

| 물류시장동향 |

1. 멕시코 컨테이너항만 신 터미널 개장예정
2. NORDFROST사, STEF사 냉동제품 물류 협력계약 체결

| 공지사항 |

1. 2016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





물류정책 · 사업동향

Royal FloraHolland사, 화훼 해상 콜드체인 활용 테스트 중

- 세계 최대의 화훼 경매·유통업체인 Royal FloraHolland사는 전통적인 항공화물인 화훼에 대해 항공운송 대비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해상 냉장컨테이너 활용 방안을 검토 중
 - Royal FloraHolland사는 연간 120억 송이 이상의 화훼를 거래하는 네덜란드 화훼 대기업으로, 지난 10여 년간 해상 컨테이너 활용에 대한 실험을 해 왔으나, 그 양은 미미한 수준임
 - Royal FloraHolland사의 Edwin Wenink씨는 항공운송은 시간에 민감한 화훼산업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나, 비용이 비싸고 특별히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아 자신들의 공급사슬관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 컨테이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힘
- 이처럼 Royal FloraHolland의 해상 냉장컨테이너 활용 시도는 온도제어를 포함한 냉장 컨테이너 기술의 발전으로 화주들이 항공에 의존하던 상품 운송에 해상 콜드체인의 도입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확장된 추세가 반영된 것임
- 그동안 Royal FloraHolland는 2M(Maersk, MSC)과 해상 냉장컨테이너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함
 -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에티오피아, 케냐 등 아프리카 재배지에서 네덜란드 교역업체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28-30일간 꽃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해짐
 - 또한 아프리카 재배지에서 암스테르담 외부 화훼시장까지 주요 운송경로에서 운송수단을 항공에서 해상으로 변경하여 38%의 비용 절감 및 87%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능함
-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해상운송 실험에서 Royal FloraHolland는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까지 복항시 공컨테이너 활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까지 냉장화물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임

자료 : www.joc.com, 2016.10.15.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미 동남부지역,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으로 물류지연발생

-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허리케인 매튜(Matthew)의 영향으로 철도 및 도로 운송에서 일주일이 넘게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 주 동부지역의 철도가 10월 8일 허리케인 매튜가 강타한 이후 현재 (10월 17일)까지 물속에 잠겨있어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해당지역 주요 철도회사인 Norfolk Southern Railway(NS)와 CSX Transportation(CSX)사의 철도 운영은 일부는 정상화 되었으나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 선로는 여전히 침수되어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 그에 따라 현재 해당지역을 통한 철도운송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수일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동부의 남북을 관통하는 I-95(Interstate Highway 95)를 따라 움직이는 CSX사 선로를 비롯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여러 지선들이 현재까지도 운행중단 중임
 -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Fort Bragg, Wilmington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의 Andrews, Dillon 지역은 여전히 침수로 인해 운행을 차질을 빚고 있음
 - 선로의 보수 및 복구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규모 및 영향을 받은 화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산정되지 못함
- 도로운송 역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여 운행중단 및 우회도로 이용을 통한 운송지연 발생 중
 - 95번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및 동부의 많은 도로가 차단되어있어 트럭운송 회사들은 비상운송 등을 통해 운송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해당지역의 트럭 운전사는 최대 수시간이 걸리는 걸친 우회로를 이용하여 운송중에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 교통국에 따르면 I-95 남쪽방향의 차선은 현재까지 차단되어 보수중에 있음
 - 홍수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음식과 유류 등 응급물자 운송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향후에도 일반제품의 운송 정상화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은 물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비상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함

자료 : www.joc.com, 2016.10.17.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호치민시, ITC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 ITC(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Trading Joint Stock Company)사의 투자로 건설된 SP-ITC 컨테이너 터미널이 호치민시 9군에 개장함
- 본 터미널 개발에 총 2억 달러가 투입되었음
 - 터미널 부지는 총 48 헥타르이며,
 - 터미널 내에서 수출입 통관, 관세 납부 및 은행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여 화주에게 "one-stop-shop-service"를 제공할 예정임
- ITC 컨테이너 터미널의 안벽길이는 총 1,000 미터로 35,000DWT급 컨테이너 선박 기항이 가능하며, 연간 2백만TEU 물동량 처리가 가능함
 - 향후 2단계 개발을 통하여, 인근 빈증(Binh Duong) 및 동나이(Dong Nai)성의 화물들도 수용할 계획임
- SP-ITC 컨테이너 터미널은 호치민 시내에 민간자본으로 개발된 최초의 터미널임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회장인 Mr Nguyen Thanh Phong은 SP-ITC가 향후 대외 터미널 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 인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SP-ITC의 터미널 주 안벽이 동나이 강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호치민시 2군에 위치한 캣라이(Cat Lai) 항이 겪고 있는 터미널 과부하 경감 및 인근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캣라이(Cat Lai)항은 호치민 시내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로, 베트남 해군(Saigon Newport Corporation) 이 운영하고 있음
 - 호치민 시 80%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 2001년에 설립한 ITC는, 선박 9척과 트럭 150대로 국내 수출입 화주들에게 육상은 물론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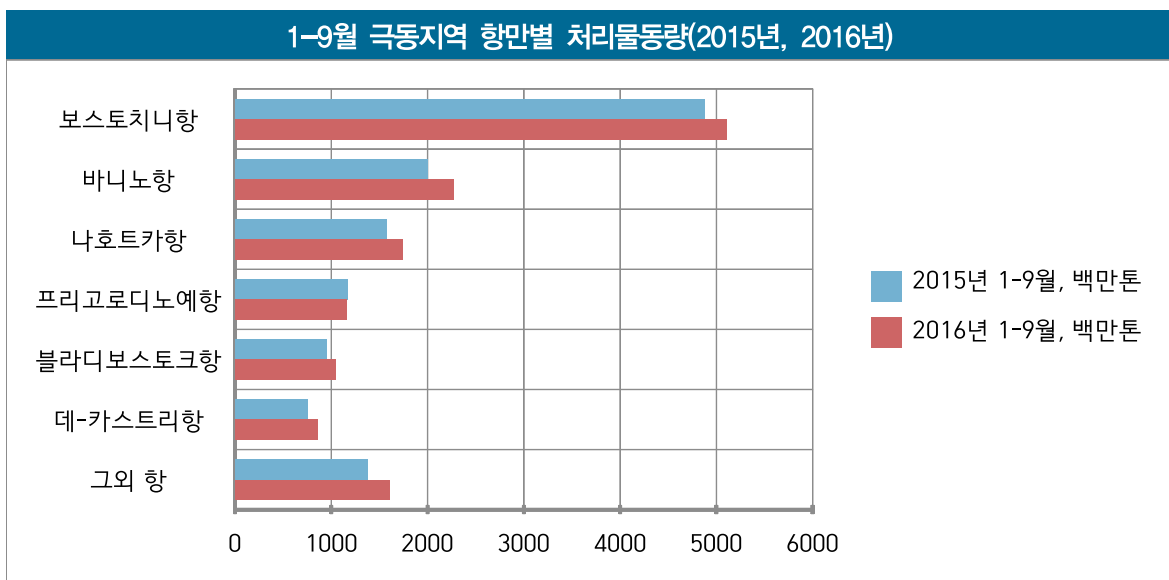
자료 : Saigon Times Daily, 2016.09.20.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1-9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처리물동량 8.5% 증가한 1억 38백만 톤

- 극동항만을 통한 처리물동량은 건화물이 14% 증가한 8,320만 톤, 액체화물은 1.5% 증가한 5,474 톤임
 - 물동량 증가율은 1-3월까지 안정적으로 9.2%-9.8% 증가하였으며, 그 외 기간은 최소 8.5%의 증가율을 보였음
 - 보스토치니항은 처리물동량이 4.5% 증가하여 5,103만 톤까지 늘어났으며 그 중 건화물은 4.9%, 액체화물은 4.2% 증가함.
 - 그 외 나호트카항 10.2%, 바니노항 13.8%, 블라디보스톡항 10.5% 처리량 증가함
 - 반면, 프리고로드항은 처리물동량이 0.8% 감소함
- 화물 하역업체중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한 회사는 블라디보스톡 어항임
 - 블라디보스톡 어항(블라디보스톡항에 위치)은 33.5% 증가한 237만톤, 아스타피예프항(나호트카항에 위치)이 36.2% 증가한 159만 톤, 바닌스크 MTP(바니노항 위치)이 25.6% 증가한 603만 톤을 기록함
- 2015년 기준 극동지역 항만 총 물동량은 1억 7,096톤임
 - 총 물동량 중 건화물이 9,799만톤, 액체화물이 7,297만톤 임



자료: www.tass.ru (검색일: 2016년 10월 14일):

자료 : www.tass.ru, 2016.10.12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물류시장동향

멕시코 컨테이너항만 신 터미널 개장예정

-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곧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에 들어감
 - 멕시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상반기 겨우 1.4% 증가에 그침
 - 2016년 전체 전망치는 전년도 보다 낮은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¹⁾
 - 이러한 시점에 Tuxpan²⁾과 Lazaro Cardenas³⁾항만의 새 터미널이 곧 운영에 들어감
- 멕시코의 자동차 총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된 대다수 자동차는 선박을 통해 Lazaro Cardenas항에서 수출되고 있음
 - 멕시코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다각화, 대표적 수출품목의 증대, 위치적으로 ‘지역적 허브’ 전략을 추구해야 함⁴⁾
 - 따라서 수출 증가에 따른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
- 장기적으로 멕시코의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의 성공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기적으로 현 환적화물 시장 및 물류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주요 환적 네트워크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해운동맹의 결성이 2017년 봄 완성될 것이므로 주요 해운사들은 지금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 파나마 운하 확장 후 초대형선 이용실적 저조⁵⁾
 - 이러한 상황에서 신 컨테이너 터미널로의 환적화물 이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새 터미널의 운영에 어려움이 전망됨

자료 : www.worldcargonews.com, 2016.10.13.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1) 2016 TOC America conference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고
 2) 멕시코 만에 위치한 항구로 수도와 가까워 멕시코 수출입 화물의 관문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3)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멕시코 최대의 항구.
 4) Maersk Line의 Mexico and Middle America 운영 책임자인 Mario Veraldo의 2016 TOC America conference 발언을 인용
 5) 일일 12척의 초대형선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일일 운행 실적은 예상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NORDFROST사, STEF사 냉동제품 물류 협력계약 체결

- 독일 냉동식품 물류 회사 NORDFROST, 프랑스 콜드체인 물류 전문 STEF사와 냉동식품 물류 협약을 체결하였음
 - NORDFROST와 STEF사는 급속냉동부분에서 유사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 유럽에서의 네트워크 확장 및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NORDFROST는 중·북유럽 35곳에 냉동제품 전용시설이 있고, STEF사는 프랑스 남부 및 북유럽 47곳에 전용 시설 및 급속냉동 시설이 있음
- 두 회사는 유럽 내 최대 크기 냉동저장창고 보유 및 유통 네트워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STEF의 최고경영자는 이번 계약으로 독일어권 국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냉동제품 유통 물류 솔루션 제공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 : www.gscintell.com, 2016.10.12

강선미 연구원
051-797-4776, sunmikang@kmi.re.kr



2016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 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매칭)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9. 12(월) 09:00 ~ 10. 21(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3호
(☎ 044-200-5767)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2차 심사 일시·장소는 별도 공고 혹은 기업에 개별 통지되며, 신청기업은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10월28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